

한국 주부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본질의 근거이론적 접근

양경희* · 정주연** · 최선하***

I. 서 론

주부는 가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가족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부의 건강은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인의 전통사회의 가치관은 여성의 예속적 위치, 남성 우위 사상, 가족주의, 남아선호사상, 효자상, 향약과 계에 나타난 연대의식과 협동정신으로 볼 수 있다(손, 1978). 따라서 남존여비 사상 및 가족 중심적 집합주의 규범원리를 특징으로 하는 전통성과, 도시화로 인하여 핵가족화하는 근대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주부는 개인차는 있으나 역할로 인한 자아정체감의 혼란, 역할기대와 수행간의 불일치, 대중이나 시대의 조류와 유리될것같은 당혹감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특히 비취업주부들의 고립감, 취업주부들의 가정과 직장의 이중 부담등은 주부들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게 한다(좌, 1993).

최근까지 여성건강에 관한 연구는 임신,분만, 산욕 등 여성의 생식기능 및 질병, 갱년기 증상, 스트레스 생활사건,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건강증진 생활방식을 비교한 연구(권, 1985; 박, 1990; 김과 박, 1992; 임, 1994; 서, 1994; 이, 1995)가 있으며, 중년 여성의 외로움, 갈등과 대응양상을 다룬 질적연구를 찾을 수 있다(이원희, 1992; 김, 1993). 이러한 연구의 호

름은 증가하는 여성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주부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으나 근본적인 의미에서 한국주부들이 생활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본질은 무엇이며 어떤 관련요인을 갖고 있는지 탐색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스트레스는 인간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간호중재를 요구하는 현상이 될 수 있다.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연구대상자 특성상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 대상의 연구, 환자 및 정상인의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처와 적응과의 상관성을 주로 보았고, 간호중재로써 지지간호를 사용한것으로 나타났다(이은옥의, 1992).

부담은 어떤 일을 맡아 의무나 책임을 지는것을 말한다. 환자가족의 돌봄으로 초래될수 있는 결과는 학자에 따라 부담감, 긴장, 스트레스, 부정적 결과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김소선, 1994) 부담감에 관한 연구는 입원 환자 및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몇 편의 연구를 볼 수 있다(서, 1993; 김, 1994; 이, 1994; Neundeorfer, 1991; Calson and Keller, 1992). 결국 부담감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돌보는 이가 느끼는 감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인은 가족주의가 강하고 친척관계를 중요시 하며 혈연공동체로 혈육을 위

* 원광보건전문대학 간호과 부교수

** 원주전문대학 간호과 교수

*** 원주전문대학 간호과 조교수

해 자기를 희생하며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한을 품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이 선한 삶이다(김, 1979; 김, 1987). 이렇듯 가족중심적 공동체 속에서 주부는 긍정적, 부정적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겪으며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생활사건과 스트레스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적응단계에서 강도가 높거나 오래 지속되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주부의 생활사건과 스트레스에 대한 조절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주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본질이 무엇 인가를 탐색한 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대상자로부터 나온 설명과 그것이 지닌 의미를 대상자의 세계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한국 주부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의 본질과 관련 변인들을 탐색하여 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함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II. 문헌고찰

1.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개념이 체계화되거나 과학화 되기 이전에 사용되고 있었다. 14세기에는 스트레스라는 용어가 고난, 역경, 곤경, 고통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17세기말에는 Hooke 가 물리학의 맥락에서 사용하였다. 이 개념은 19세기에 이르러 체계적으로 쓰이기 시작하여 20세기 중반에 본질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스트레스는 삶의 한 부분으로 어떤 요구적 상황이 개인의 자원이나 대처능력에 부담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종류의 경험을 말한다. 또한 스트레스는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이며 스트레스의 근원 즉 어떤 요구적 상황을 스트레스원(stressor)이라 하며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불안으로 진전된다.

Cannon(1932)에 의하면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필수적으로 받게되는 스트레스외에도 안녕상태와 생명을 위협하는 예측하지 못한 스트레스나 힘에 겨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위협에 대항하거나 도피하는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 위협에 대항하는 경우 공격행위가 도피하는경우 위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스트레스가 질병의 실제적인 원인이라고 언급하였다.

Seyle(1936)는 인간이 스트레스를 처리하는데 이용하는 에너지의 양은 한정되어 있으며, 그 에너지의 양은 유전, 정신적 태도, 생활패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스트레스를 신체의 소모반응이라고 정의하고 긍정적 스트레스를 'eustress', 그리고 부정적 스트레스를 'distress'라고 하였다. 그후 Arnold(1960)는 정상적인 생활과정이 기능상 신체적, 정신적 파괴에 관련되는 개념이며, 항상성을 유지하기위한 반응으로 이것은 인지적 평가에 따라 개인차가 있다고 하였다.

Lazarus(1976)는 스트레스를 자극으로 보며, 외적 또는 내적 요구가 개인의 적응자원을 능가할때 경험하고 이 요구와 자원의 평가에서 위협이나 위험을 감지할때 동반되는 가장 중요한 정서를 불안으로 보았으며 인지적, 생물학적인 면을 강조하였다. Mechanic(1970)은 개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때 불쾌한 반응을 일으키는것을 원인으로 보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편한 요인들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고 하였다.

Selye(1976)는 인간이 생활하는 동안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를 매일 경험하는 외적 자극을 스트레스원이라고 했으며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사건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 Levin 과 Scotch(1970)는 스트레스를 사회적 측면에서 연구하였으며 환경으로부터의 자극군을 스트레스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Neuman(1989)는 자신의 간호이론에서 스트레스원이 되는 출처는 개인차원의 인간, 집단으로서의 인간 또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고려하였고, 사회, 심리, 신체적 고통이나 문화적 변화등은 스트레스원이 된다고 가설하였다.

이렇듯 스트레스 유발자는 과거경험이나 다른 학습 과정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지각할 수 있는 사회학적 사건을 뜻한다.

생활사건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다룬 몇 편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1993)는 미국이민 한국인의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준 생활사건으로 대인관계, 경제문제, 그리고 가

죽문제를 보고하였다. 오와 한(1990)은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은 스트레스 생활 사건을 적게 경험한 청소년보다 많은 건강문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1995)는 생활사건스트레스 정도는 가정주부군과 취업주부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취업주부군이 다소 높았다고 하였고 정신건강상태는 취업주부군이 가정주부군에 비하여 양호하였으며, 두 군 모두에서 생활사건 스트레스 정도와 정신건강상태는 순 상관 관계를 보였다고 언급하였다. 박(1995) 역시 남녀 모두에서 취업자가 비취업자에 비해 주관적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임(1994)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갱년기 증상의 호소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특히 정신신체적 증상과의 관계가 가장 높았다고 하면서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에 대한 접근시 사회심리적 요인인 생활사건들 특히 가족관계요인을 중요한 접근의 실마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김과 박(1992)의 연구에서는 직업이 있는 주부가 없는 주부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 생활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신체증상은 오히려 전업주부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권(1985)은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심리적 distress 수준이 낮고 남자들과 비슷한 정신건강을 누리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서(1994)는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건강증진 생활방식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취업주부군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생활사건은 스트레스 촉진요인으로서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며, 취업유무는 주부의 스트레스 정도와 건강상태 그리고 자아존중감에 다양한 범위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한편 Vinokur와 Sizer의 연구에서는 생활사건으로 인한 손상은 생활의 변화자체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사건에 의해 야기되는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였다.(임, 1994에 인용)

2. 부담감

부담이란 어떤 일을 맡아 의무나 책임을 지는 것이다. Lazarus(1980)는 스트레스를 '환경에 대한 개인의 평가와 해석'으로 정의하였으며, 심리적 스트레스

를 '부담(고통)이나 자신의 능력넘어의 것, 혹은 자신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하게 되는 개인과 환경과의 특정한 관계(Lazarus, 1984)'라고 설명하였다.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부담은 '고통 혹은 어려움을 수반하는 의무, 책무, 혹은 책임감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 '무게로 가라앉히거나, 중압감을 주거나, 근심을 야기시키는 어떤 것', '어떤 사람이나 재산에 부과되는 책무, 구속, 혹은 방해물'이라고 표현된다.

부담감은 긴장감, 역할피로, 스트레스 등과 유사하게 제시된다(이, 1994). Bull은 입원환자 가족원의 부담감에 대하여 부담감은 만성환자를 돌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가족원에게 나타나는 반응으로 이는 가족원의 신체적 건강, 기능, 정신적 건강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부담감은 어떤 역할과 관련되며 이는 또다시 스트레스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입원환자 가족원의 부담감은 평균 63.0점으로 조사도구의 중간치인 52.75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담감과 관련되는 요인은 가족원의 나이, 가족원의 병원체류기간, 환자의 질병중정도, 입원기간 등이고, 돌봄행위의 정도나 빈도는 부담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이, 1994에 인용).

서 등(1993)은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을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환자의 행동이나 상태변화와 같은 상황 및 사건과 관련되어 경험하게 되는 정서, 신체, 사회 및 재정적 어려움과 불편감의 정도'라고 하였다. 또한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은 5점 척도에서 2.16으로 비교적 높지않은 편이었고, 부담감과 관련된 요인간의 관계는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부담감과 건강문제는 적으며 삶의 질은 높다는 결과를 얻었으나 사회적 지지가 부담감과 건강문제의 완충 역할을 하는 것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Cantor는 환자와 돌보는 자의 관계가 부담감의 37%를 설명하는데, 돌보는 자가 배우자인 경우, 그들 자신의 건강과 경제로 인해 돌보는자가 자녀인 경우보다 더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고 했으나 Robinson과 Zarit, Reeve, and Bach-Peterson은 이들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김, 1994에 인용).

Calson과 Keller(1992)는 뇌졸중환자의 가족, 특히 배우자가 느끼는 부담의 예측인자로서 환자의 특성으로는 나이, 성별, 손상정도 등과 사회적 지지, 돌보는 사람의 특성으로서는 나이, 환자와의 관계 등이 될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중에서 사회적 지지정도가 부

담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Neundorfer(1991)는 치매환자 배우자의 대처와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에서 배우자들이 취한 대처노력은 그들의 건강을 손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대처양상에는 도망 혹은 회피, 직면, 책임감의 수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으로부터 선행연구는 입원환자와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 정도 및 관련된 여러가지 요소를 규명하고, 부담감과 건강문제를 중재하는 요인을 확인하려는 양적연구에 그치고 있으며, 정상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담감에 관한 연구는 발견할 수 없었다.

3. 근거이론 연구방법론

1)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

근거이론의 철학적 근거는 사회과학, 특히 사회심리학과 사회학의 상징적 상호작용의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의 목적은 사회심리학적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상징적 상호작용은 이미지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미지들은 인간집단이나 사회, 사회적 교섭, 대상, 행위자로서의 인간, 인간행동의 상호연관등 본질을 묘사하며 연구와 분석의 틀을 형성한다.

Mead(1934)와 Blunder(1969) 이론에 의하면 상징적 상호주의 특징은 사회조직보다는 행동하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행동하는 개인을 출발점으로 하여 분석하는것이므로 근거이론접근방법은 인간의 행위를 과정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며 외형적 행위보다 내재적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연구방법의 단계

자료수집은 개방적 면담, 창조적 면담, 핵심집단 면담, 참여자 관찰, 문서분석, 개인적 경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포괄적으로 수집하며 자료수집과 동시에 분석을 시작한다.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다음연구 대상으로 부터 수집할 자료의 방향을 염두에 두고 자료의 수집과 분석의 전 과정 동안 지속적인 비교와 질문을 한다. 분석절차는 Strauss 와 Corbin(1990)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전개부호화(open coding)에서 자료를 개념화 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 개념화 한다는 것은 관찰, 문장, 절 등을 구분하고 각 개개의 사례, 아이디어, 사건에 그현상을 대표하는 용어를 혹은 어떤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슷한 개념끼리 묶는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며, 다시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개념적인, 혹은 추상적인 명칭을 붙인다. 범주화 과정에서 그 범주의 속성을 이끌어 내고 그 속성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연결 부호화(axial coding)에서는 하위범주를 다시 상위범주로 추상화 한다. 이것을 근거이론 틀에 맞추어 상황, 맥락, 중재상황, 전략, 결과로 분류하며 이들을 속성과 차원을 매개로 하여 서로 연결한다.

셋째, 선택적 부호화(selective coding)는 핵심범주를 선택하고 다른 범주들간의 관계를 진술하며 일정한 유형을 발견하여 자료를 체계화 시키므로써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론을 도해하거나 서술적으로 메모하여 이론의 기본적 모형을 설계한다. 그 다음 다양한 상황적 조건하에서 범주간의 관계진술을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자료에 비추어 검증한다.

Ⅲ. 연구절차

본 연구는 한국 주부들이 생활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Strauss & Corbin(1990)의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1.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10명으로 31세-50세에 분포한다.(32세 2명, 33세, 33세, 36세, 37세, 41세, 47세 2명, 50세). 거주지는 익산시(4명), 원주시(4명), 그리고 서울특별시(2명)였으며, 대상자는 전업주부 5명, 취업주부 5명으로 구성되었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1995년 5월 20일 부터 6월 20일 까지 였다. 각 면담은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직장에서 1-3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면담시간은 40분-1시간 30분가량 소요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면담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녹음기를 사용하였으나 거절하는 대상자에게는 면담시 직접 메모하였다. 녹음한 내용 및 메모는 방문완료후 즉시 노트에 정리하였다.

면담방법은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여 대상자에 따라 반구조화하여 실시하였다.

면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생활속에서 느끼는 어떻습니까?
- 생활속에서 어려움을 느낄때는 언제입니까?
- 어려움을 주는 일은 무엇입니까?
- 살면서 답답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 다른 사람이 당신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IV. 자료 분석 결과 및 논의

1. 자료분석에서 나타난 개념 및 개념의 범주화

1) 전개부호화와 연결 부호화

면담자료로부터 도출한 개념은 149개로 명명하였으며 이를 다시 33개로 하위 범주화 할 수 있었다. 상위 범주는 10개로 결정하였으며 각각의 범주를 연결부호화와 관련하여 그 과정을 순서대로 연결하여 <표 1>과 <표 2>를 작성하였다.

<표 1>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 및 과정분석

개 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패러다임
시어머님과 가치관 차이 시부모와의 자녀양육에 대한 견해차이 시부모와의 습관 안맞음 시부모를 진정으로 인정하지 못함 남편과의 불일치 남편과의 싸움 선배와의 성격차이	다름	스트레스 요인	인과적 조건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 시댁에 대한 불만 시어머니에게 닦함 남편의 친절에 대한 무관심 남편의 친절에 대한 무례함 남편의 친절차별 서두른 결혼 대학진학 못함	불만		
남편의 무례함, 남편의 트집 남편의 술버릇, 남편의 편가름 자녀의 대뜸, 자녀의 말안들음 사춘기 자녀에 대한 부적응 사춘기 딸의 속삭임, 딸의 짜증 자녀의 버릇없음, 자녀의 늦은귀가	괴로움		
미혼동생들에 대한 걱정, 친정부모의 건강염려, 시부모의 건강 자녀양육 문제, 미래의 문제, 자녀공부 사춘기자녀에 대한 안스러움, 자녀건강 자녀성적걱정, 자녀전공에 대한 마음씀, 자녀의 능력 발휘, 자녀의 공부힘듦 딸의 성적, 자녀교육, 자녀교육의 어려움 자녀지도 문제, 자녀의 양육방법, 자녀육아법, 자녀지도상의 어려움, 자녀양육태도	염려		

개 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패러다임
남편의 지나친 효심 남편의 지나친 간섭	강요		
친정에 죄스러움 친정오빠에 대한 미안함	미안함		
자녀가 숨김, 자녀와의 대화불통 자녀의 말없음 남편이 숨김, 남편의 비사회성 남편의 말수적음	대화부족		
일상의 바쁨, 마음의 여유없음 정서적 여유, 정신적 부담 육체적 피로, 피로감, 건강에 자신없음	피로		
화남, 기분나쁨	화남		
불신, 불편감, 부당함 배반감 속상함 안쓰러움	속상함		
당혹스러움 어이없음	난감함		
속상함, 야속함	원망		
남편으로부터 소외당함 남편이 고립감을 느낌 남편과 자식으로 부터의 소외 남편이 부부동반 안해줌 자녀의 성장, 자녀의 독립 가족의 분산, 집이 텅빔, 혼자사는 생활, 자녀와 살던 시절회상, 자녀와 살고 싶음 멀리있는 자녀를 보러가는 즐거움 남편이 숨김, 혼자 옷사는 남편	소원감		
상실감, 부족감	부족감		
애착, 후회	애착		
	대인관계	관계성	맥락
자녀학비에 대한 부담감, 자녀교육비 자녀가 장학생 되기를 원함 생활비 부담	경제적 부담감	경제적 부담	중심현상
시부모 봉양, 시부모 안모심	시대에 대한 의무감		

개 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패러다임
시부모에 대한 의무감 시부모 모심 시부모에 대한 책임감 미혼 시누이에 대한 책임감 주부역할에 대한 부담감 주부와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직장인과 엄마의 역할 가사에 대한 부담감, 가사일 맞벌이 부부, 역할과중 직장에서의 공부 임신원함, 임신에 대한 부담감 임신중독증 경력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부담감 임신의 부담감	부 역할부담 담 감 자녀생산의 부담	
	수용/방치	관여성	중재상황
자기 반성 친구 만남, 외출시도 화해노력, 노력하는 자세 간청, 대화시도 주말나들이 시부모의 아이양육, 친척들이 역성등 가사일 돌보는 이 선배와 상의함 친정어머니의 자녀양육	내성적 사고 자아 찾기 노력 가족간 의사 소통 가족의 친화 지지체계	독자적 접근법 상호협력적 접근법	전략
아들에 대한 신뢰, 자녀가 대견함 자녀에 대한 뿌듯함, 자신에 대한 인정 인정받음 남편의 자상함, 남편의 소중함 남편에 대한 의존감, 남편에 대한 기대감 노후대책, 장래대비 남편의 승진대비 참음, 마음을 억누름 자녀육구 제한, 남편육구 제한 대화하기 싫음, 허용할 수 없음 이성과 감정의 불일치 용서안됨, 자신없음 충돌피함	인정 장래대비 자제 제한시킴 인정할 수 없음 갈등 자신없음 회피	긍정적 해결 부정적 해결	결과

〈표 2〉 각 범주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

패러다임	범 주	속 성	정 도
인과적 조건	다름 불만 피로움 염려 강요 미안함 대화부족 피로 화남 속상함 난감함 원망 부족감 애착	강도 빈도	강-약 짙음-드뭄
맥락	대인관계	유형 친소	각 유형 양상 멈-가까움
중심현상	경제적 부담감 시대에 대한 의무감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부담감 임신의 부담감	강도	강-약
중재상황	수용/방치	강도	강-약
전 략	내성적 사고 자아 찾기 노력 의사소통 친화 지지체계	강도 빈도	강-약 짙음-드뭄
결 과	인정 장래대비 자제 제한시킴 인정할수 없음 갈등 자신없음 회피	강도	강-약

본 연구에서는 하위범주로 '다름', '불만', '피로움', '염려', '강요', '미안함', '대화부족', '피로', '화남', '속상함', '난감함', '원망', '소원감', '부족감', '애착', '경제적 부담감', '시대에 대한 의무감',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부담감', '임신의 부담감', '내성적 사고', '자아찾기', '노력', '가족간의사소통', '가족의 친화', '지지체계', '인정', '장래대비', '자제', '제한시킴', '인정할

수 없음', '갈등', '자신없음', '회피'가 도출되었다.

이 하위범주들은 다시 상위범주로 구분하여 '다름', '불만', '피로움', '염려', '강요', '미안함', '대화부족', '피로', '화남', '속상함', '난감함', '원망', '소원감', '부족감', '애착'은 '스트레스 요인'에, '경제적 부담감'은 '경제적 부담'에, '시대에 대한 의무감'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부담감'은 '역할부담'에, '임신의 부담감'

은 '자녀생산의 부담'에, '내성적 사고', '자아찾기', '노력'은 '독자적 접근법'에, '가족간 의사소통', '가족의 친화', '지지체계'는 '상호협력적 접근법'에, '인정', '장래대비', '자제', '제한시킴'은 '긍정적 해결'에, '인정할 수 없음', '갈등', '자신없음', '회피'는 '부정적 해결'에 각각 포함시켰다. 이를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에 적용시켰을 때 한국 주부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본질의 중심현상은 '부담감'으로 구분되었으며 이러한 중심현상의 인과적 조건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맥락은 '대인관계의 관계성'으로, 중재상황은 수용과방치로 분류되는 '관여성'으로, 전략은 '독자적 접근법'과 '상호협력적 접근법'으로, 그리고 전략은 '긍정적 해결'과 '부정적 해결'로 구분되었다.

2) 선택적 부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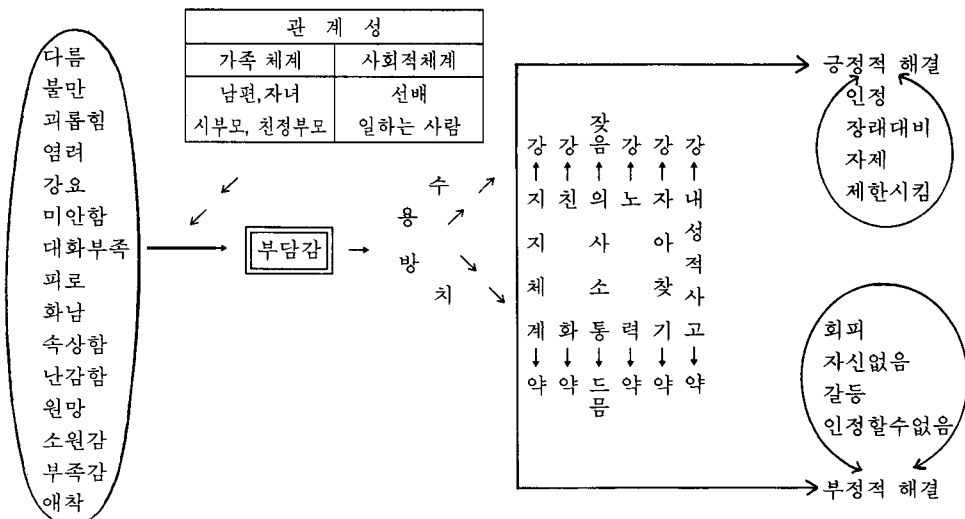
중심 현상인 부담감을 중심으로 인과적 조건, 맥락, 중재상황, 전략, 결과의 속성사이의 가설적 관계를 차원의 영역을 함수로 하여 중심현상과 각 범주와의 관계개요를 가설적으로 진술하면 다음의 24개의 가설로 확인된다.

- 다름이 많을수록 부담감은 강할 것이다.
- 불안이 강할수록 부담감은 강할 것이다.
- 피로움이 강할수록 부담감은 강할 것이다.
- 염려가 강할수록 부담감은 강할 것이다.
- 강요가 강할수록 부담감은 강할 것이다.

- 미안감이 강할수록 부담감은 강할 것이다.
- 대화가 드물수록 부담감은 강할 것이다.
- 피로가 강할수록 부담감은 강할 것이다.
- 화남이 강할수록 부담감은 강할 것이다.
- 속상함이 강할수록 부담감은 강할 것이다.
- 난감함이 강할수록 부담감은 강할 것이다.
- 원망이 강할수록 부담감은 강할 것이다.
- 소원감이 강할수록 부담감은 강할 것이다.
- 부족감이 강할수록 부담감은 강할 것이다.
- 애착이 강할수록 부담감은 강할 것이다
- 대인관계가 친밀할수록 부담감은 강할 것이다.
- 대인관계 유형에 따라 부담감은 다를 것이다.
- 부담감은 수용의 관여에 관련될 것이다.
- 부담감은 방치의 관여에 관련될 것이다.
- 부담감은 독자적 접근법에 관련될 것이다.
- 부담감은 상호협력적 접근법에 관련될 것이다.
- 독자적 접근법이 강할수록 긍정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 상호협력적 접근법이 강할수록 긍정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 부담감은 긍정적 해결 혹은 부정적 해결로 귀결될 것이다.

3) 도해

위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각 범주간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관계를 정형화하여 그 결과를 도해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한국주부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본질의 패러다임 모형

2 논 의

주부들이 생활속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중심현상은 '부담감'으로서 부담감의 속성은 교육비 및 생활비로 부터 오는 '경제적 부담감', 시부모 봉양과 미혼 시누이에 대한 책임감을 포함하는 '시대에 대한 의무감', 주부와 취업여성으로서의 역할 병행에 따른 '역할 부담감', 그리고 자녀 생산과 관련된 '임신의 부담감'이었다. 이러한 범주는 모두 강도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정도의 범위는 강-약 이었다.

Duvall의 가족발달과업 이론에 따르면 성인중기의 여성은 미취학 아동, 학령기 아동, 그리고 청소년을 둔 가정의 주부로서 생산적인 직업성취도가 높은 시기이며 출산 및 남편의 승진, 시부모 섬김, 자녀교육 등의 많은 과업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부는 정서적 안정감과 감정적 만족을 가족구성원에게 부여하여 가족의 통합을 도모하며, 특히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절대적인 헌신이 한국사회 특유의 구조적 맥락을 형성하고 있는바 본 연구결과 중심현상으로 나타난 경제적 측면, 시대과의 관계, 역할 부하, 그리고 임신에 대한 부담감은 연구 대상자의 연령이 성인중기(여자는 30-45세)에 속하는 것으로 미루어 이를 잘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1995)는 월 평균 200만원 이상 집단에서, 박(1990)은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점수가 높다고 하였으며, 이(1993)는 미국이민 한국인의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준 생활사건으로 대인관계, 경제문제, 그리고 가족문제를 보고한바 있다.

중심현상에 대한 인과적 조건은 시부모, 남편, 선배와의 가치관, 습관, 성격차이에 따른 '다름', 남편의 친절에 대한 배려 부족과 시어머니 및 자신에 대한 못마땅함에서 오는 '불만', 남편과 자녀로 부터 받는 '피로움', 시부모와 친정부모의 건강, 육아와 자녀교육,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남편의 효심과 간섭에서 비롯된 '강요', 친정식구에 대한 '미안함', 자녀 및 남편과의 '대화부족', 신체적, 정신적 '피로', 기분이 나쁘고 '화남', 당혹스럽고 어이없음을 경험하는 '난감함', 남편으로 부터 소외당하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른 '소원감', '부족감', 그리고 '애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이러한 인과적 조건들은 '부담감'을 일으키는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작용하였으며 이들의 독성은 강도와 빈도였고, 정도의 범위는 강-약, 잦음-드뎠음으로 파악되었다.

임(1994)은 중년 여성의 스트레스 생활사건중 '부부간의 의견 및 성격차이로 인한 불화'가 가장 많은 빈도를 나타내었고, '자녀의 중요한 시험실패'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고 언급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한 대부분이 남편, 자녀 시부모, 친정식구, 그리고 자신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주부들의 가족관계 요인은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부담감이 유발되는 맥락은 주부가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관계성'으로 파악되었으며 남편, 자녀, 시부모, 친정부모의 가족체계와 선배, 일하는 사람을 포함한 사회적 체계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것의 속성은 대인관계의 유형과 친소이며, 정도의 범위는 각 유형양상, 멀-가까움이었다.

이(1995)는 취업주부와 가정주부의 정신건강문항에 대한 반응에서 '비평을 들으면 항상 마음이 걸린다', '사소한 일에도 신경을 자꾸 쓰게되며 마음이 걸린다'에 모두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박(1990)의 보고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이(1992)는 중년여성의 갈등을 탐색한 결과 '인간관계'가 핵심이었으며, 시대, 남편 자녀와의 문제로 범주화 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한국의 주부들이 타인과의 관계성을 의식하며 자신의 문제에 몰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부가 경험하는 부담감이 중재되는 상황은 수용 혹은 방치로의 관여성에 달려 있었다. 이 경우 속성은 강도이며, 정도의 범위는 강-약 이었다.

이(1995)와 임(1993)은 인생에 대한 느낌에 따라 생활 스트레스 정도를 달리 받아들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즉, 행복하게 느끼는 군과 비판적으로 느끼는 군에서 생활 스트레스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결국, 부담감을 수용하는 상황에서 긍정적 해결로, 방치하는 상황에서 부정적 해결로 귀결됨을 알 수 있다.

부담감에 대한 전략으로는 '독자적 접근법'과 '상호협력적 접근법'을 취하였다. '독자적 접근법'으로는 자기를 반성하는 '내성적 사고', 친구를 만나며 외출을 시도하는 '자아찾기', 그리고 화해하려는 '노력'이 고려되었고, '상호협력적 접근법'으로 대화를 간청하거나 시도하는 '가족간 의사소통', 주말나들이를 포함한 '가족의친화, 시부모, 친정어머니, 친척, 선배, 가사를 돌보는 이를 동원한 '지지체계'를 활용 하였다.

이들 접근법의 속성은 강도이며, 정도의 범위는 강-약으로 파악 되었다.

앞서 인용한바 있는 이(1992)의 연구에서 한국중년 여성이 경험하는 갈등에 대한 대응양상이 '참는다', '식인다', '푼다'로 파악된 것과 비교할때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독자적 이거나 상호협력적 접근법을 취하므로서 능동적, 적극적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주부들이 경험하는 '부담감'의 결과는 '긍정적 해결'과 '부정적 해결'로서 '긍정적 해결'로는 자녀를 대견해 하며, 남편에게 의지하고, 자신을 인정하는 '인정', '장래대비', '자제', 그리고 남편과 자녀의 욕구를 '자제시킴'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정적 해결'로는 대화하기 싫고 허용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음', 이성과 감정의 '갈등', '자신없음', 그리고 충돌을 피하려는 '회피'로 구별되었다. 이들 범주는 강도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정도의 범위는 강-약으로 나타났다.

이상에 의거할때 주부는 가정을 돌보는데서 오는 경제적 부담감, 시댁에 대한 의무감, 주부와 취업여성으로서의 역할 과중, 임신의 부담감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감'은 남편, 자녀, 시부모, 친정부모의 가족체계와 선배, 일하는 사람을 포함한 사회적 체계의 대인관계 '관계성'의 맥락에서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자극 받는다. 즉, 남편, 시부모, 선배와 가치관, 습관, 성격이 다름, 남편, 시어머니, 자신에 대한 불만, 화남, 원망을 경험하며 가장 가까운 남편과 자녀로부터 괴로움을 받고, 강요당하며, 친정식구에 미안함을 느끼며, 친정부모, 시부모, 자녀, 그리고 미래에 대해 염려한다. 속상함과 난감함을 경험하며 남편의 성격 그리고 자녀가 성장함에 따른 대화 부족과 소원감을 느낀다. 가정 돌봄의 어려움으로 부족감과 피로를 경험하면서 자신에 대한 애착을 떨칠 수 없으므로 이상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은 주부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나아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고려된다.

'부담감'이 증대되는 상황은 수용 혹은 방치로의 '관여성' 방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내성적 사고, 자아찾기, 그리고 부담감을 극복하려는 노력과같은 '독자적 접근법'과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친화, 그리고 지지체계 이용을 포함한 '상호협력적 접근법'이었다.

현재 주부가 경험하는 부담감의 결과는 '긍정적 해결'과 '부정적 해결'로서 '긍정적 해결'로는 남편, 자녀,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며 인정하고,

장래에 대비하며, 스스로를 자제하면서, 아울러 남편과 자녀의 욕구를 자제시킨다. '부정적 해결'로는 대화가 꺼려지고 수용이 안되므로 인정할 수 없는 감정을 경험하는 것, 갈등, 자신없음, 회피가 확인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가정을 돌보는 주부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본질에 대한 근거 이론적 방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다.

1) 주부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본질의 중심현상은 '부담감'이었다.

2) 주부들이 경험하는 부담감의 속성은 '경제적 부담감', '시댁에 대한 의무감',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부담감', '임신의 부담감' 이었다.

3) 주부들이 경험하는 부담감에 대한 인과적 조건은 시부모, 남편, 선배와의 가치관, 습관, 성격차이에 따른 '다름', '불만', 남편 및 자녀로 부터 받는 '괴로움', '염려', 남편으로 부터의 '강요', 친정에 대한 '미안함', 남편과 자녀와의 '대화부족', '피로', '화남', '속상함', '난감함', '원망', 남편 및 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소원감', '부족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애착'이었다.

4) 부담감은 대인관계 '관계성'의 유형과 친소의 맥락에서 발생 하였다.

5) 주부는 부담감을 수용 혹은 방치하는 '관여성'속에서 해결 전략으로 '독자적 접근법'과 '상호협력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6) 주부들이 경험하는 부담감의 결과는 '긍정적 해결'과 '부정적 해결'의 양상을 보여 주었다.

이상으로 부터 주부는 대인관계의 맥락에서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 요인과 관련하여 부담감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스트레스 요인이 개인의 인지과정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심리적인 간호중재가 제공되므로써 주부의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긍정적인 해결에 이르도록 간호사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겠다.

2. 제 언

본 연구의 결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

고자 한다.

1) 대상자의 연령범위를 축소하여 가족발달단계별로 주부들의 어려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2) 취업여성 혹은 전업주부로 특성화하여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3) 부담감의 강도와 개인의 성격간에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연구를 기대한다.

4) 개인의 성격과 대처전략간에 관련이 있는지를 규명하는 연구를 기대한다.

5) 본 연구 결과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강은실(1995). 근거이론접근방법을 적용한 알콜중독자 부인의 경험.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경희(1985). 한국도시주부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혜진(1994). 청소년 분노현상의 근거이론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소선(1994). 뇌졸중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감에 대한 연구. 간호학 탐구, 3(1) : 67-88
- 김예경, 성명숙, 장희정(1993). 중년여성의 외로움에 관한 연구-근거이론접근방법에 따른-, 연구논집, 제 24집,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65-187
- 김영희, 박형숙(1992). 일부 도시주부들의 스트레스 생활사건 및 신체증상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2(4), 569-588
- 김옥명, 최경숙(1991). 응급실 환자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성인간호학회지, 3 : 5-18
- 김윤희(1992). 안절부절, 대한간호학회 정신간호학회. 주제 : 인간행동개념과 간호. 서울 : 정신간호학회
- 김재은(1987). 한국인의 의식과 행동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노춘희(1990). 정신병동에 입원한 환자와 그 가족의 분리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이화간호학회지, 제 23권, 97-103
- 대한간호협회(1995). 스트레스 관리. 보수교육 자료
- 박예숙(1990). 인간의 성장발달과 건강증진. 서울 : 수문사, 151-164.
- 박은옥(1995). 취업과 결혼상태가 남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간호학회지, 6(1), 박혜순(1990). 중년여성의 생활사건과 정신건강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서미혜, 오가실(1993). 만성질환자 가족의 부담감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23(3) : 467-486
- 서연옥(1994).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건강증진 생활양식 비교연구. 간호학탐구, 3(1) : 93-113
- 손은수(1978). 한국인의 가치관, 문음사
- 오가실, 한정식(1990). 스트레스 생활사건, 건강문제, 대응, 사회적 지지의 관계-청소년을 대상으로. 간호학회지, 20(3), 414-429
- 이선이(1995). 가정주부와 취업주부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9(2), 69-79
- 이소우(1993). 미국 이민 한국인의 스트레스 반응양상과 생활사건과의 상관연구. 간호학회지, 23(2), 299-315
- 이영신, 서문자(1994). 입원환자 가족원의 부담감에 대한 연구. 간호학 논문집,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8(1) : 17-32
- 이원희(1992). 한국 중년 여성이 경험하는 갈등과 대응양상. 성인간호학회지, 4(2) : 136-144
- 이은옥, 이은주, 이은희 외(1992). 불안 및 스트레스 개념을 다룬 국내 간호논문의 분석. 간호학회지, 22(3) : 271-296
- 이정섭(1992). 암으로 자녀를 잃은 가족의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은, 이시백(1989). 가정주부의 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수준과 가족건강간의 관련성 연구. 대한보건협회지, 6(2) : 4-21
- 임은옥(1994) 갱년기 증상과 생활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8(2), 1-34
- 정문희, 이선자, 이명숙(1990).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서울 : 신광출판사
- 좌경자(1993). 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대처행동에 따른 가정관리 행동 및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 218-234
- Bull, M. J.(1990). Factors influencing family caregiver burden and health, Western J Nurs Research, 12(6) : 756-776
- Calson, R., Keller, M. L.(1992). Control over Daily Life and Caregiver Burden : Little Things Do Count. Rehabilitation Nursing Research, Fall, 1(1), 6-13

- Lazarus, R. S., Folkman, S.(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middle 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 Social Behaviors, 21 : 219-239
- Lazarus, R. S.,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Springer Publishing Comp. pp. 11-21
- Mechanic, D., Levin, S.(1970). Model of Stress, Social Stress(Ed.) by Levin, S. and Scotch, N. A., Chicago, Aldine Pub. Co., pp. 259-290
- Neuman, B.(1989). The Neuman's System Model application to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Norwalk, Conn. : Appleton-Cange.
- Neundorfer, M. M.(1991). Coping and Outcomes in Spouse Caregivers of Persons with Dementia. Nursing Research, Sept./Oct., 4(5), 260-265
- Selye, H.(1976).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Hill
- Strauss, A., Corbin, J.(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

- Abstract -

Key words : Stress, Burden

A Grounded Theory Study on Substantials of Stress of Korean Wives

Yang, Koung Hee* · Chung, Ju Yeon**
Choi, Sun H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truct a substantive theory about the substantials of stress of Korean Wives in the community. The

subjects were 10 wives. In the process of data analysis, 'burden' was found to be the core phenomenon. And the properties of burden were 'burden of domestic economy', 'a sense of duty about the esteemed family of her husband', 'role burden in a family and her work place', and 'burden of conception'. Twenty five hypotheses were derived from the integration of categories. It is as follows :

1. The stronger the difference as perceived by subjects, the stronger the burden will be.
2. The stronger the dissatisfaction, the stronger the burden will be.
3. The stronger the trouble, the stronger the burden will be.
4. The stronger the worry, the stronger the burden will be.
5. The stronger the forcible demand, the stronger the burden will be.
6. The stronger the regret, the stronger the burden will be.
7. The rarer the communication, the stronger the burden will be.
8. The stronger the fatigue, the stronger the burden will be.
9. The stronger the anger, the stronger the burden will be.
10. The stronger the worrisome feeling, the stronger the burden will be.
11. The stronger the unbearable feeling, the stronger the burden will be.
12. The stronger the resentment, the stronger the burden will be.
13. The stronger the sense of insufficiency, the stronger the burden will be.
14. The stronger the estrangement, the stronger the burden will be.
15. The stronger the attachment, the stronger the burden will be.

* Department of nursing, Wonkwang Public Health Jr. College

** Department of Nursing, Won-ju National Jr. College

16. The stronger the personal relations, the stronger the burden will be.
17.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the burden according to types of interpersonal relations.
18. The burden will be related to the attitude of acceptance.
19. The burden will be related to the attitude of negligence.
20. The burden will be related to independent approach method.
21. The burden will be related to interdependent approach method.
22. The stronger the independent approach method, the subject will appear the positive settlement
23. The stronger the interdependent approach method, the subject will appear the positive settlement.
24. The subject experiences the burden will appear the positive settlement or negative settlement.